

이정현, 우리 시대의 성실한 엘리스 "잘 먹고 잘 자야 창조성 커져"

"만능간장에서 '반도'의 여 전사로, 잊혀도 다시 시작"

"강의 원조?... 간절하게, 진실하게 나를 비울 뿐"

"'반도'의 연상호 감독, 최고 감독이자 인생 멘토"

"취미 있어야 슬럼프 극복... 음식하면, 시름 잊어"

"가장 큰 창조적 자산은 억압 없이 보낸 유년 시절"

"조선의 레이디 가가? 퍼포먼스 시도는 내가 먼저"

이정현이 요리를 잘한다는 소문은 일찍이 외식업계의 '대모' 노희영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요리 예능계의 양대 구루 백종원과 김수미를 잇는 새로운 신데렐라로 등극할 줄은 몰랐다. '이정현 만능 간장'은 '백종원의 만능 간장'을 잇는 열풍을 일으키고, 최근 출간한 요리책 '이정현의 집밥 레스토랑'은 생활 요리계의 대가 김수미의 '수미네 반찬'과 즐겁게 결합 중이다.

청담동 언덕의 레스토랑엔 늦은 점심으로 샐러드를 먹는 손님들이 몇몇 보였고, 한가로운 공기 사이로 과일 차향이 은은하게 풍겼다. 순백의 티셔츠를 입고 머리를 질끈 묶은 채 노메이크업 상태로 앉아 새처럼 지저귀는 이정현은, 이곳 여성들 가운데 가장 수수해 보였다. 인터뷰 내내 갓 태어난 것 같은 표정이었다.

-인터넷에서 이정현을 치면 '만능 간장'이 자동 완성되더군요. 기분이 어떨까요?

어느 장소에서건 순서에 맞춰 하나씩 요리가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는 건 얼마나 즐거운가.

광주향쟁을 다룬 전설적인 영화 '꽃잎'으로 주목을 받은 후, 20대를 세기말의 '테크노 전사로 보냈던 이정현. 배우에서 가수로 급격한 커브를 그린 커리어 덕에, 30대에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 차근차근 '막노동'에 가까운 배역으로 영화계 스템을 밟았던 이정현에게 요리 예능을 권한 사람은 연상호 감독이었다.

K 쯤비 시대의 서막을 연 영화 '부산행'의 감독 연상호는 '부산행' 이후 4년을 그린 속편 '반도'의 여전사로 이정현을 캐스팅했다. 그 자신, 애처기에 요리를 사랑했던 연상호 감독은 이정현에게 조연했다. '좋아하는 취미로 대중과 친밀해지는 것도 괜찮다고.

폐허가 된 한반도에서 인육을 뜯어먹으려 달려드는 굶주린 쯤비와 싸우던 이정현은, 촬영이 비는 날 집으로 돌아와 흰 앞치마로 갈아 입고 TV 카메라 앞에서 '만능 간장'과 '계란장'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런 극과 극의 태도

는 이정현에게 하나 이상한 일이 아니다. 3천 대 1의 경쟁을 뚫고 '미친 소녀'로 스크린에 데뷔했을 때부터, 순간 전압이 백만 볼트로 치솟는 테크노 전사로 노래할 때도, 그는 집으로 돌아오면 어김없이 엄마와 요리하며 몸과 마음의 치유를 받았다.

광기에 가까운 에너지로 '무당의 딸'이 아닌가 의심받던 이정현은, 평범한 부모를 둔 서울의 한 가정에서 딸 다섯의 막내로 자랐다. 시골벽적인 집안에서 자매들과 넘치도록 사랑과 우정을 지지고 볶고, 끼니마다 풍성한 집밥을 먹고 컸다. 이정현이 부모로부터 받은 최고의 예술 교육은 '무조건 믿어주고 억압하지 않는 것'이었다.

코로나19 와중에서 개봉하는 도전적인 여름 블록버스터 '반도'의 제작발표회를 며칠 앞두고 이정현을 만났다.

청담동 언덕의 레스토랑엔 늦은 점심으로 샐러드를 먹는 손님들이 몇몇 보였고, 한가로운 공기 사이로 과일 차향이 은은하게 풍겼다. 순백의 티셔츠를 입고 머리를 질끈 묶은 채 노메이크업 상태로 앉아 새처럼 지저귀는 이정현은, 이곳 여성들 가운데 가장 수수해 보였다. 인터뷰 내내 갓 태어난 것 같은 표정이었다.

-인터넷에서 이정현을 치면 '만능 간장'이 자동 완성되더군요. 기분이 어떨까요?

"좋아요. 마냥 신기하죠. 예전엔 카리스마, 여전사로만 알려져서 사람들이 상상도 못 했대요. 집에서 조용히 요리하는 사람인 줄은(웃음). 제가 연예계 생활 25년이에요. 그동안 제 나름대로 얼마나 업 앤 다운이 심했겠어요. 대중들 눈에 안 보일 때도 한 번도 쉼 적은 없었거든요. 중국, 일본 해외 활동하면서 비행기 타고 쉬 새 없이 국경을 오가다가도, 집에 오면 엄마랑 TV 앞에 앉아 가만히 음식 다뤄 봤어요."

밥하는 소리, 밥 먹는 소리가 그렇게 평온하고 좋았다고 배시시 웃었다.

-무엇보다 요리하는 표정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스크린에선 늘 굶주린 상태로 극한의 연기를 해왔으니, 반전도 그런 반전이 없습니까.

"하하. 그 연기의 바탕이 다 잘 먹고 잘 자는 데 있었어요. 요리는 엄마에게 모든 걸 받았어요. 딸이 다섯이고, 그 식구가 다 모이면 20명이 넘었어요. 음식 있는 곳에 사람 있다고, 어릴 때부터 엄마는 손이 커서 김장도 한번 하



면 300포기씩 하셨어요. 집에 오는 사람은 빈손으로 보내는 법이 없었죠. 늘 먹고 싸우고... 사춘기 때는 엄마가 고생하는 게 싫었는데, 커서 보니 그걸 제가 고스란히 닮았어요. 무조건 뭘 많이 해서 먹어야 해(웃음)."

-시끄럽고 다복한 집이었군요. 억압이 전혀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저희 집은 시험 기간에 공부하려고 밤에 불켜놓으면 엄마한테 혼쫓이 났어요. '밤늦게 뭐 하는 거냐'고 불 끄고 나가셨어요. 다른 친구들은 학원 다섯 개씩 다닐 때라, 사춘기 시절엔 '왜 공부 못하게 하나며 대들었어요. 엄마는 늘 '행복하게 놀고 먹는 게 최고'라고 하셨어요. 용돈도 냉장고에 위에 두면 다섯 자매가 알아서 정직하게 가져갔어요. 아이들을 철저히 믿어주셨죠."

-부모가 억압하지 않고 믿어주면 내재된 에너지가 '창의성'으로 폭발하더군요. 부모의 영향권에서 일찍 빠져나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는 거죠. 정현 씨는 어떻게 연기를 하게 됐죠?

"4-5살 때부터 아빠의 전축에서 LP음악을 들으며 자랐어요. 퀸, 마이클 잭슨, 마돈나...미국 팝 영향을 많이 받았죠. 유치원 때부터 문 워크를 출 정도였어요(웃음). 원래 꿈이 가수였다가 우연히 영화 오디션엔 보게 됐어요."

장선우 감독의 영화 '꽃잎' 오디션장에서 마지막 번호를 쥘 지원자였고, 16살에 3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나왔다. "주어지면 뭐든 정말 열심히 해요. 그게 돌고 돌아 또 다른 행운을 부르는 것 같아요"라며 복스럽게 웃었다. 문득 이정현의 2015년 작 영화 '성실한 나라의 엘리스'가 생각났다. 열심히 살수록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도시 빈민의 삶을 그린 서늘한 블랙코미디.

'성실한 나라의 엘리스'는 영화 제목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이정현을 연상시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열심히 살수록 점점 미궁에 빠지는 반면, 이정현은 계속 행운의 사다리를 탄다는 점이 다르지요.

"(놀라는 표정으로) 그렇게 보셨어요? 저도 '꽃잎'으로 데뷔한 후 나이가 애매해서 활동을 못 했어요. 가끔 들어오는 배역도 거의 공포였는데, 그건 또 무서워서 못했죠(웃음). 그러다 가수 활동을 시작했는데, 한번 무대로 가면 영화계에는 또 없는 존재가 돼 버려요. 가수 활동은 이십 대 초반이면 전성기가 끝나고, 열심히 해외 활동을 해도 국내에선 잊힌 채로 서른을 맞았죠.

다행히 2011년 무렵에 우연히 사석에서 박찬욱 감독을 만났다.

"그동안 왜 연기를 안 했느냐며 얼마 뒤 아이폰 단편 영화 '파란만장'으로 불러주셨어요. 그 영화가 베를린 영화제 단편에서 황금곰상을 받으면서 '이정현이 다시 연기한다'는 소문이 난 거죠. 그렇게 단편 영화, 독립 영화로 시작해 다시 차곡차곡 스템을 밟아 올라갔어요."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기다리면, 어디에서건 늘 늦지 않게 기회의 바람이 불어오지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뒤 '범죄소년'이라는 독립 영화도 노캐런티로 출연했는데 해외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며, 운 좋게 '명량'의 정씨 부인에 캐스팅이 됐어요. 분량은 조금 나왔는데 많이들 인정해주셨죠. '성실한 나라의 엘리스'도 예산이 7천만 원이었나? 작은 영화라 노캐런티였고, (밥값이 없어 아침 촬영을 못 한다는 걸 알고)제가 스태프들 식비도 대고 그렸어요.

회사에선 당연히 반대했지만, 전 그냥 이런 작품이 세상에 나오기만 해도 좋겠다 싶었어요. 기대도 안 했는데, 그 영화가 개봉도 하고 저는 그해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2015년)까지 받았어요."

1996년 '꽃잎'으로 신인상을 받은 후 19년 만의 수상이었다. 다른 세계를 향한 눈빛, '정상성'에서 밀려난 채로도 살기 위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잡초 같은 여자' 역에 이정현을 능가할 이가 또 있을까. 그렇게 세기말을 가수로 보낸 후 통째로 날아갔던

2000년대 영화 커리어가 다시 시작됐다. 야망이나 총명보다는 순수하고 해맑은 몰입이 읽히는 이정현의 선택들.

-영화 '반도'는 '부산행' 이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연상호 감독과는 즐겁게 작업했나요?

"그분은 최고였어요. 감독님은 배우들이라면 꼭 작업하고 싶어 하는 최상위권의 리더죠. 완벽한 콘티, 본인이 샘플로 보여주는 직접 연기, 1분이 필요하면 딱 1분만 찍는 귀신 같은 효율성... 더 놀라운 건, 편집 결과를 보면 기가 막히게 장면이 붙어있어요. 슬픈 감정이면 불필요한 걸 쥐어짜지 않고, 딱 그 슬픈 연기를 건져 내요. 저녁 8시까지 예정된 촬영이, 점심 전이면 끝이 나죠."

-그 운영의 묘가 정말 궁금하군요. 자신의 머릿속에서 모든 설계가 끝난 감독만이 그런 식의 효율의 리더십이 나옵니다. '군함도'를 함께 했던 류승완 감독은 어땠나요?

"스타일이 다르죠(웃음). '군함도'는 역사물이었고, 류승완 감독은 좀 더 엄격했어요. 큰 작품이었고 풀샷이 많아, 여기저기서 폭탄이 터지는 가운데 한 쪽에선 연기해야 했어요. 모두가 합심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었죠. 징용 노동자들을 표현하느라, 황정민, 송중기 씨도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체중을 뺐고, 저도 당시 몸무게가 35kg이었어요."

-'늘 스크린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악바리처럼 몸을 쓰는 역을 맡아왔죠. 연상호 감독은 이번 영화 '반도'를 위해 '매드맥스'의 무드를 참고했는데, 정현 씨는 혹시 '매드맥스'

▲ '부산행' 속편, 블록버스터 쯤비 영화 '반도(7월 개봉)'에서 여전사 '민정' 역을 맡은 배우 이정현/사진=파인트리엔터테인먼트

의 여전사 샤를리즈 테론에게 영감을 받았나요?

"아니요. 특별히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무조건 감독님을 멘토처럼 의지하고 따라갔어요. 시나리오에 나온 대로, 감독님이 알려준 대로... 모든 게 명확했어요."

-16살에 '꽃잎'에 출연할 때는 어땠죠? 장선우 감독은 90년대 한국영화계의 작가주의적인 마초로 유명했지요.

"모든 게 무서웠어요. 필름 돌아가는 소리고, 엄청난 규모의 촬영 스태프들도... 첫 날부터 촬영을 접고 재, 누가 뽑았냐?'고 화를 내셨어요(웃음). 숙소로 돌아와 울면서 결심했죠. '연기를 모르니 그냥 미친 아이로 살자'고요. 다음 날부터 그냥 미쳐서 거리를 헤매다녔어요. 불쌍해서 주민들이 데려다 씻기면 스태프가 와서 조용히 데려갔어요. 돌로 그어 온몸에 상처를 내고, 머리로 유리창을 받고 기절도 했어요. 백지 상태로 가서 그렇게 무식하게 했어요."

-그런 식의 극심한 매소드 연기는 자아를 훼손해요. 일상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아의 혼돈을 겪을 텐데요.

"다행히 집에 오면 다 치유가 됐어요. 언니들 덕에 집안이 늘 밝고 시끄러웠어요.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에 밥 먹으면 모든 상처가 다 아물었어요."

-자그마한 체구가 발산하

(...11페이지에 계속)



▲ 16살의 완벽한 여배우 '꽃잎'의 이정현. 데뷔작으로 대중영화계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다.



▲ 예능 프로그램 '신상출시 퍼스트랑'에 출연해 요리 실력을 선보이기도 한 이정현. 평소 요리, 청소, 정리로 스트레스를 푼다.